세상부자와 복지부자

(신3:1~29)

23. 그 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25.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네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네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 그 때에 우리가 벳브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부자와 복지부자>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합니다.

'세상부자와 복지부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일본에는 신사(神社)가 참 많습니다. 역사문제가 언급될 때마다 전범들의 유골을 안치해 놓은 야스쿠니 신사에 정부 요원들이 참배하는 것이 문제가 되곤 합니다. 이처럼 신사가 많은데 요새 인터넷으로 다 검색을 해본 뒤에 일본 도쿄로 여행을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결코 빠질 수 없는 신사가 한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 신사의 이름이 "제니아라이벤자이텐"이라고 합니다. '제니아라이'는 '돈을 씻는다.'는 뜻이고 '벤자이텐'은 '일곱 가지 복을 내리는 신들 중에서 유일한 여신의 이름이 있는데 그 여신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제니아라이벤자이텐'이라는 다소 긴 이름의 신사가 도쿄에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에 꼭 이 신사에 들리고 싶어 하는 이유는, 신사 안에 샘물이 솟아올라서 경내에 물길을 만들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물길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지점에 특이하게 바가지와 소쿠리를 준비

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소쿠리도 큰 대접 정도의 소쿠리인데 이곳은 돈을 씻는 곳입니다. 소쿠리에 돈을 담아서 바가지로 물을 떠서 돈을 씻는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씻은 돈을 빨리 쓰면 다른 돈이 많이많이 들어온다.'는 믿음이 있다는 얘깁니다. 사람들이 와서 지폐나 동전까지도 물에 씻은 다음에 탈탈 털어서 신사에서 나가자마자 돈을 쓴다고 합니다. 일본 신사에 가면 "토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양쪽으로 비스듬한 마름모꼴의 기둥이 있고 그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토리이가 터널을 이룬다고 하는데 이 신사에서 돈을 씻은 뒤에 돈이 불어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사의 뜻으로 자기 이름을 새겨서 세운 '토리이' 기둥 문들이 터널을 이루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럴 수가 있다면 세상 식으로 이 제니아라이벤자이텐이 복지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우리의 복지는 어떤 곳입니까? 십자가 하나로 사는 곳이 복지입니다. 그런데 이 제니아라이벤자이텐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우리는 돈을 씻지는 않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삽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산다.'는 것은 끊임없이 '마음을 씻어낸다'는 것을 뜻하고, 마음을 씻어내기만 하면 복이 굴러들어오는 복지의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제니아라이벤자이텐을 비유적으로 염두에 두고 말하자면 복지는 내 마음 씻고 부자 되어 사는 곳입니다.

마음을 씻으려면 마음의 더러움이 전제되어야만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마음은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지음 받았습니다.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라는 것은 하나님만으로 채워져서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좋아하고 사랑해서 만족과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더러움입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것이 더러움으로, 이러한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맺음에서 더러움이 발생하게 됩니다.

'사랑과 기쁨'은 인간 생명의 본질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좋아하고 좋아하는 것을 손에 쥘 때에 기뻐하는 것이 바로 생명 현상의 본질입니다. 좋아하며 좋아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인데, 하나님 이외의 모든 관계가 인간의 마음에 더러움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이 더러움을 씻기만 하면 복이 막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선민이 아주 용한 점쟁이에게 가서 점을 본다고 가정해봅니다. 선민도 참 선민이고 점쟁이도 너무 용한 점쟁이입니다. 그러면 이 점쟁이의 점괘가 어떻게 나올까요? 정말 용한 점쟁이라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보게, 당신은 틀렸어. / 아니 뭐가 틀렸습니까? / 이 땅에서 복 받기는 틀렸어. /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 다시 말해줄까? 당신은 이 땅에서 당신의 마음에 만족할 일을 찾기는 글러먹었어. 당신의 운명과 팔자는 이 땅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채울만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어. 그래도 당신이 기쁨과 만족을 얻기 원한다면 오직 하늘에서만 기쁨과 만족이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운명이고 팔자야. 당신은 이 땅에서 기뻐할 일이 전혀 없을 것이야. 단지 하늘에서 주어지는 기쁨과 만족을 가지고 살면 살지언정, 이 땅으로부터는 당신에게 기쁨이 주어질 게 없으니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어. 글러 먹은 거야'라고 하는 이게 팔자고 운명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손에 쥐고 살 마음이 있다면 팔자와 운명처럼 땅에서는 기쁨이 존재하지 않고, 하늘에서만 기쁨의 이유를 찾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때에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두 종류의 서로 다른 간절함이 나란히 대비되고 있습니다. 본문 전체의 말씀의 흐름에는 요단을 건너지 않는 두 종류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쪽은 모세 쪽을 말하고 다른 한 쪽은 두 지파 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세와 두 지파 반이 함께 요단 동편에 남게 되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됩니다. 그 비교를 해야 될 관전 포인트는 둘 다 무서울 정도로 강렬하게 부자 되기 위한 간절함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 부자 되기 위한 강렬한 간절함보다 더 한 것은 발견 될 수 있을까요? 없을 것입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모든 실질적인 내용들도 결국은 부자 되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이 부자 됨의 간절함이 있고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도 부자 됨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간절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간절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을 하는 이유가 그 간절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복지에 들어가면 내가 가진 이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도 간절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인데, 복지에서의 부자 되기 위한 간절함입니다.
모세의 간절함과 두 지파 반이 가지고 있었던 간절함의 차이를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좀 심하신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매몰차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므리바 물 사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았다'고 해서 모세가 지속적으로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불신앙의 극을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적인 입장에서 한 순간 역정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지금까지 모세를 쓰셨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길 허락받은 자들이지만 이들이 모세보다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거절하시고 오늘 이 본문이 등장하는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순간 잘못을 이유로 들어서 모세의 마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픈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게 하신 것이라고 봅니다. 출애굽 2세대는 더 많은 잘못을 더 많은 횟수로 행했습니다.

그러면 이 모세의 간절함은 도대체 무엇을 향한 간절함일까요? 요단강 건너에 있는 가나안 땅

의 풍광이 아름다워서 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5절에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라고 '아름답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로 풍광이 아름답기 때문에 간절하게 가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지요. 풍수지리설적으로 돈이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간절히 원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땅이 비옥해서 소산이 많기 때문입니까? 이것도 아닙니다. 26절에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라고 하시는데 이런 하나님의 응답은 처음 봅니다.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어지간히 졸라대며 간절하게 원했던 것이 있었는데 무엇입니까? 오늘 문맥을 보면 하나님께서 출애굽 사건 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모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가나안 땅 자체가 아닙니다.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땅이고, 500년 동안 염두에 두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순간입니다. 모세가 너무너무 서러웠던 것은 500년 동안 되어 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자신이 누락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들어가게 하셨다면 이러한 간절함이 표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가게 하시니 가나안 땅에 대한 간절함이 표현되는데 그 내용이 '지금까지 그 동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뜻을 나를 통해 나타내지 않으셨습니까? 출애굽으로부터의 40년간의 모든 역사가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존재한 것인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의 진입이 성취되려는 그 자리로부터 내가 제외되어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서럽고 안타깝습니다.'라고 하나님이 귀찮게 여기실 정도로 졸라댄 것인데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저 오랜 시간을 강하게 요구하면 이루어진다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씩 기도했는데 들어주시지 않았고, 예수님의 강청하시는 기도도 내가 의도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마음으로 보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은 모세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결정하신 계획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하게 원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간절함을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드러내면서, 백성들이 복지에 들어가서 살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많이 긁어모아 부자가 될 것을 간절히 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지를 살 때에 간절히 원해야 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건강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실패이고 복지가 아닙니다. 돈이 안 벌리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그게 성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으는 자들이지 돈을 모으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지 건강을 지니고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들의 성공과 형통을 획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획득하고 사는 자들입니다. 자녀들에게 곤란이 주어지고 사업이 망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뜻을 벌면 됩니다. 하나님 뜻의 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간절함이 복지를 살 때에 가져야 하는 간절함인데 마음을 씻을 때에 하늘을 향한 간절함이 생깁니다.

반면에 두 지파 반은 마찬가지로 간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단 동편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달라고 할 때에 모세가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절하는 이유에 대한 모든 조치를 다 취하겠다고 하면서까지 요단 동편을 고집하는데 그만큼 간절함이 무엇을 향한 간절함입니까? 양떼가 많고 가축 떼가 많으니 목초지가 필요하다고 여겨서 생긴 간절함이었습니다. 어쨌든 그 땅을 얻게 되지만 이해가 안 되는 점은 40년 광야생활 우여곡절의 역사는 약속의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함이었는데, 그 약속의 땅에 대한 포기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목초지에 대한 간절함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합니다. 목초지는 가축 떼를 번성케 해주고, 풍요와 다산을 주고 부자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가치들로 부자 되기 위한 간절함이 이들을 요단 동편에 남게 한 것입니다.
요단 동편에 남았지만 모세는 가나안 땅을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목초지와 토지소산 때문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벌려는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간절함으로 복지로 들어가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반면에 두 지파 반은 세상적인 가치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를 향한 부자의 간절함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경계의 바깥으로 나가게 되고 이때에 하나님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과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연합하여 함께 갈 수 있습니까?
늘 말씀드렸듯이 소설가의 영(정신)은 소설가의 글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 속에 들어계십니다. 하나님의 인격성의 표현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원할 때에, 결국 그 나라가 임하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긁어모으면 우리가 하나님 부자가 되게 됩니다. 그 뜻과 계획을 제외하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가 유지 될 수 있는 길은, 그 분의 뜻과 그 분의 계획에 대한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 부자, 하나님의 계획 부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돈 벌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버는 세상 부자는 아직도 하나님의 복지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이루어질 때에 돈은 벌릴 수도 있고, 안 벌릴 수도 있습니다. 안 벌려도 안 벌리는 뜻을 얻어야 하고, 벌리게 하셔도 돈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을 벌리게 하시는 뜻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건강해도 건강하게 하신 그 뜻을 가져야 하고, 병이 들어도 병이 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갖는 뜻 부자가 되어야 하는데 모세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다윗이 노래 할 때에 '보배'라는 말을 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

이다 /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이 보배를 우리가 모아야 부자가 됩니다. 우리의 하루하루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모래알처럼 많은데 그것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제니아라이벤자이텐에서 돈을 씻어서 써버리면 다른 돈이 불어날 것이라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부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으로 십자가를 붙잡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매사에 모든 대상들의 앞에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 마음의 씻음이 일어납니다. 제니아라이벤자이텐에 들어가서 돈을 씻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잡고 내 마음을 씻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을 씻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로 기뻐하지 않겠다.'는 것이므로 하늘에 대한 간절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것은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이름만이 담기시는 가장 깨끗한 상태로 그 이름이 가리키는 존재를 좋아하게 되고 존재를 향한 열망이 생겨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승천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간구처럼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벌려는 하늘을 향한 간절함이 생기게 됩니다. 가장 사소하고 작은 뜻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다 긁어모으려고 하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 부자, 하나님의 계획 부자가 되려고, 계획이 성취되고 뜻이 성취되는 그 현장을 긁어모으려고 혈안이 되어서 사는 자들이 바로 선민입니다.

주님과 사도들과 초대 교회의 교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의 뜻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벌기 위해 그 몸을 십자가에 거셨습니다. 우리는 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33년 사시고 요절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 당신 몸을 투자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도들의 삶도 결국은 자기 몸까지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도박에 미친 사람이 나중에 돈이 없어서 자기 아내와 딸까지 팔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벌기위해서 도박꾼처럼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눅14:26절에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버는 길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 부자, 하나님의 계획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 몸까지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생기든 어떻게 되든 하나님의 뜻이라면 다 이루어지기를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업을 한다면 사업이 흥하든 망하든 하나님의 뜻을 사업 현장에서 벌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면 그 뜻을 벌기위해 사

업을 치워버리는 것이고, 사업이 잘 되어도 하나님의 뜻을 버는 것이고, 일용할 양식을 제외한 벌린 모든 돈의 지출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하나님의 뜻을 버는 것입니다. 돈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신 대로 쓰시라고 내놓는 것입니다. 건강이 있으면 건강자체를 누리고 향유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건강으로 뜻을 벌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포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혀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병자가 침대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움직이지 못하는 자리에서 복음의 사역을 일으키고 로마의 황실 중심부로 복음이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성공 실패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공이나 실패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만 챙기면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간절함으로 복지를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된 것을 이스라엘 250만 명 선민들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뜻의 성취 현장에서 제외되는 것의 서러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것에 대한 애끓는 아쉬움을 가지고 복지를 살면서, 광야에서는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처럼 복지에서는 만나가 끊어지는 대신에, 하늘에서 내려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절함으로 뜻을 먹으면서 살고 하나님의 뜻의 부자들이 되라고 당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음을 씻기만 하면 하늘에 대한 모세의 간절함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고, 모세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 부자들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 부자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우리는 세상 부자를 열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마음을 씻으며 하나님의 뜻 부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